

“서귀포서도 헌혈을”... 헌혈의 집 재개소

제주도혈액원 20년 만에 18일부터 서귀포센터 운영 지자체 지원 첫 헌혈의 집... 운영비 등 도비 투입

서귀포시 헌혈의 집이 문을 닫은 지 20년 만에 재개소해 서귀포 지역 헌혈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은 서귀포 지역 헌혈자를 위한 ‘헌혈의 집 서귀포센터’를 개소해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서귀포 지역 헌혈의 집 개소는 지난 2002년 1월 서귀포시 중앙로에 있던 헌혈의 집이 폐쇄된 지 20년 만이다.

그동안 서귀포 지역에서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시까지 이동하거나 월 1~2회 헌혈버스가 방문할 때만 가능한 불편이 있어 헌혈의

집 재개소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요청도 꾸준히 있었지만 지역 헌혈자 확보 방안 마련과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했다.

헌혈의 집 서귀포센터는 국고가 지원되는 기존 헌혈의 집과는 달리 지자체가 지원하는 최초의 헌혈의 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귀포시 헌혈의 집 개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조로 도 예산 2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혈액관리본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에 필요한 예산 3억6000만원을 긴급 편성해 개소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또 헌혈의 집 운영 경비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합의해 지속 운영을 위



20년 만에 문을 열고 18일부터 운영되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 ‘헌혈의 집 서귀포센터’.

한 동력이 마련됐다.

헌혈의 집 서귀포센터는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11,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며 토요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헌혈이 가능하다.

제주혈액원 관계자는 “헌혈의 집

서귀포센터는 지자체 지원 1호 헌혈의 집이라는 상징성이 있다”며 “서귀포센터 개소를 계기로 헌혈의 집이 없는 지역의 헌혈자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집 설치와 시설 개선에 지자체들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서귀포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오는 25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만51~70세 대상

서귀포시가 검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첫 시행한다.

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상자 1000명을 선정해 오는 25일부터 첫 검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농업축산식품부의 공모 선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과 예방 상담을 지원한다.

검진 항목은 농약 중독 감시, 근

골격계질환, 골절 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 질환 등 5개 영역·10항목이다. 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후 예방교육과 상담이 이뤄지며, 정부가 전체 검진 비용(1인 16~20만원)의 90%(자부담 10%·2만원)를 지원한다.

시는 검진의료기관으로 접근성을 비롯해 검진 의료장비 및 시설, 전담 인력 등 기준 조건을 심사해 서귀포 열린병원을 지정했다.

검진 선정 대상자는 서귀포 열린병원에서 오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검진 예약 064-762-8010. 백영기기자

도 환경보전위원회 공식 출범 환경보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

제주 지역의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위원회가 15일 본격 출범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위원회를 제정하고,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법조계·산업계의 추천을 받아 18명(당연직 공무원 4명·민간 전문가 14명)으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했다.

환경보전위원회는 제주도 환경보전 정책의 기본방향인 환경보전 계획 수립과 변경, 환경보전 증진 시책,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등을 심의·조정·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첫 회의에서는 민간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주도 환경보전 정책기반 구축 추진상황 보고, 건강영향조사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오 지사-지역구 국회의원 ‘국비 확보’ 한뜻 도-지역구 국회의원 15일 예산정책간담회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도내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협력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도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대표되는 신3고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면서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확보한 국비 1조6709억원보다 10% 증가한 1조8380억원을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로 잡았다. 교래정수장 현대화

지역구 국회의원 예산정책 간담회

일시 | 2022. 7. 15.(금) 16:00 장소 | 제주도청 백옥홀



사업,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사업,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핵심사업들을 설명하며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재호 의원은 “올해 예산 확보부터 해서 제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고보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우주산업, 바이오

헬스산업, 영어교육도시 내 대학 유치, 지역대학 투자 활성화, 어르신·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을 제안하며 “충분히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으면 국회가 정상화됐을 때 제주도가 원하는 사업을 도정과 함께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상반기 폐형광등·폐건전지 74t 수거 처리

제주시, 종이팩도 37t 수거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생활계 유해 폐기물 74t을 수거해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한 유해폐기물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다. 폐형광등은 유해 물질인 수은(개당 평균 25mg)이 들어있고, 건전지는 망간·니켈·카드뮴 등을 함유하고 있다. 이를 분리 배출하지 않고 무단 폐기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별도 수거함을 마련해 수거해왔다. 수거된 폐기물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운송해 안정적인 처리와 함께 유가성 있는 물질을 추출해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유해 폐기물의 재활용과 적정 처리를 위해 폐건전지 등을 재활용 도움센터로 1kg 이상 가져오는 경우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상반기 처리량은 폐형광등 약 22만개, 폐건전지 약 13만개, 종이팩도 37t을 처리했다. 이 중 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량을 보면 2020년 180t, 2021년 187t이었다. 올 상반기에 111t을 처리하면서 전년보다 전체 처리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선희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드론 방제 7-8월 김녕 소나무림 44ha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시기에 맞춰 드론을 이용한 방제작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솔수염하늘소 개체 밀도를 조절해 재선충병의 자연 확산을 방지하고 재발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작업은 지상 방제가 어려운 구좌읍 김녕리 일대 소나무림 44ha

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7~8월 중 3회에 걸쳐 제주시에서 자체 운영하든 방제용 드론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드론 방제는 액상화제를 물에 희석해 항공 살포하는 방식이다. 제주시는 낮은 고도에서도 약제 살포가 가능해 소규모 소나무림에 대한 방제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2019년부터 드론 이용 방제작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한림읍과 구좌읍 일대 총 36ha를 드론 작업으로 방제했다. 전선희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씩씩음, 균형형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745-8900, H.P: 010-9258-7508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 전량 좋은 신종품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기기가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향)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친해형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실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레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함량 및 높이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핑키다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친해형,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키라향, 산화향(흰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허균,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야마노스, 미니몬, 국내산 행자묘목 판매(신규 2020-2023)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사전예약 | 탐나는봉, 선경, 주문생산 | 주문생산 |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 991번길1(수산리735)